



문 의	특허심사 3국 로봇자동화심사과	과 장 전일용 사무관 양지환	042-481-5474 042-481-5928
 	2018년 2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5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안내서비스, 인공지능 로봇에게 물어보세요!!

-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출원 큰폭 증가 -

AI를 이용한 안내로봇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장소를 누빌 예정인 가운데,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분야 특허출원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로봇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육체나 감정 노동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련 서비스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관련 특허출원은 2014년, 2015년에 각각 26건, 39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2년간('16~'17) 출원 건수(133건)는 이전 2년(6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내로봇은 호텔과 쇼핑몰은 물론 금융상품 안내 창구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관련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붙임 1, 2].

최근 3년간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83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32건으로 19%, 외국기업이 29건으로 17%를 차지하여 대기업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3].

이는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빠르게 고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시장을 선점하려는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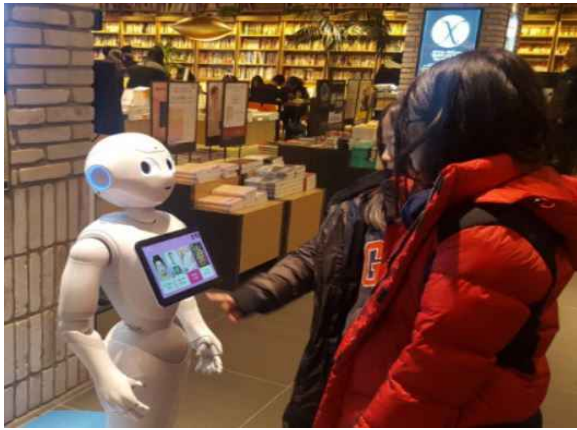
특허청 전일용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AI에 기반한 안내로봇은 여러 유형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조속히 권리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국내기업들의 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과 연계한 로봇기술의 연구개발 전략수립(IP-R&D)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선행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IP 서비스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 3국 로봇 자동화심사과 사무관 양지환(☎ 042-481-5328)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로봇 시범운영 사례



<서점 안내용 ‘페퍼’ >



<도슨트 로봇 ‘모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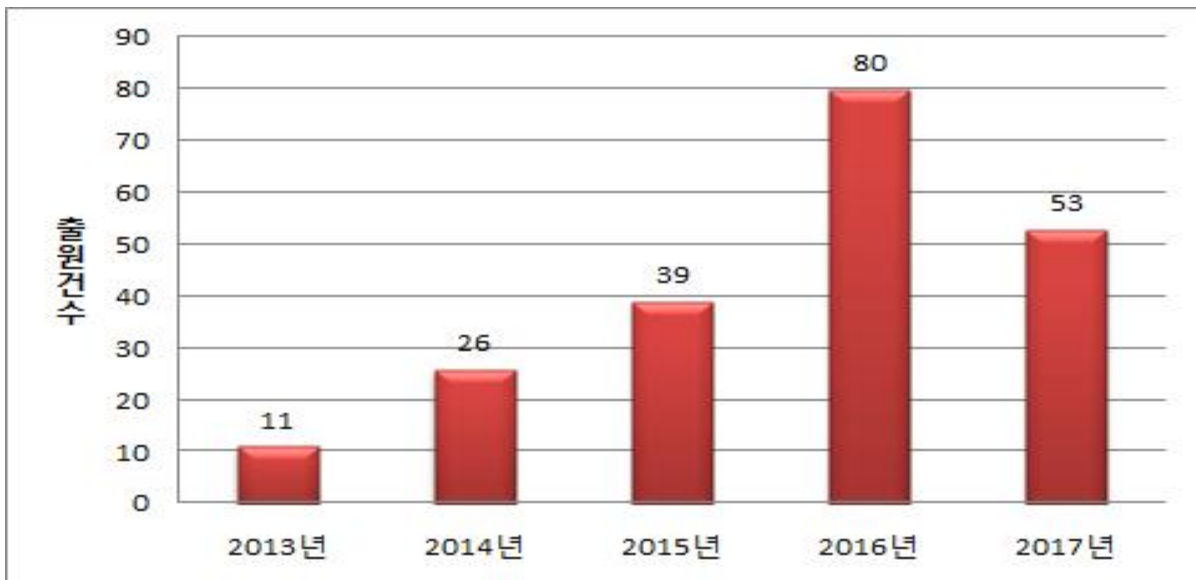


<호텔 안내 서비스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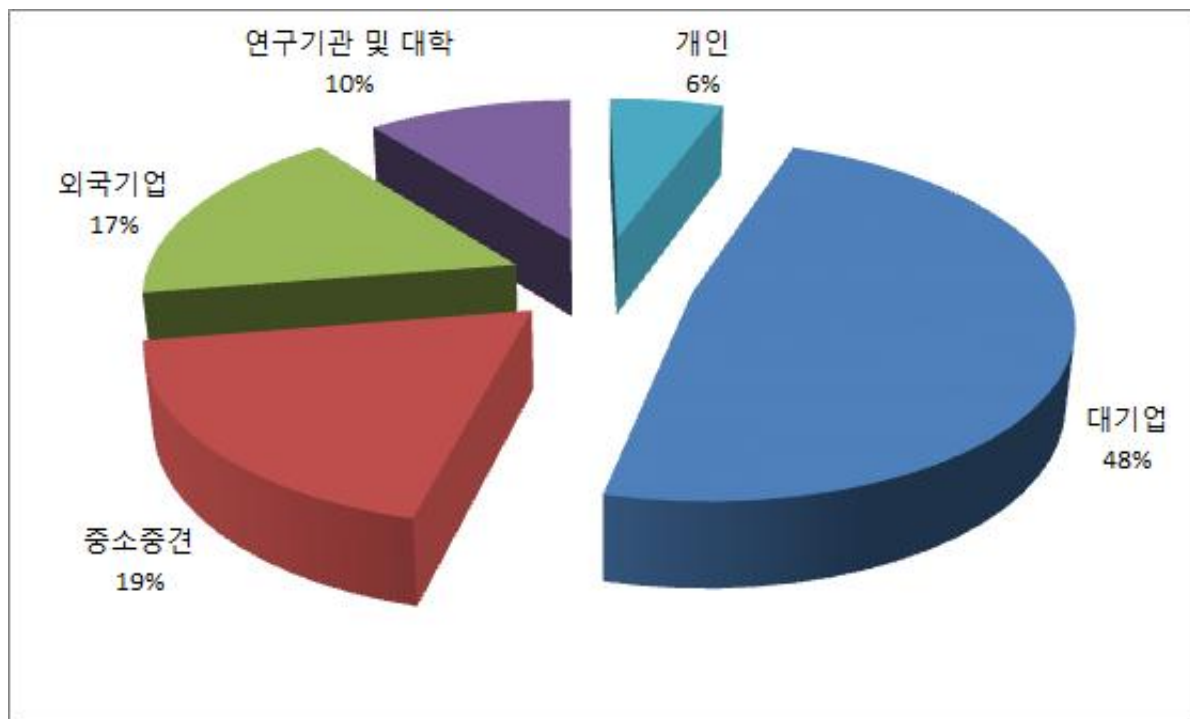
<은행 접객 로봇>

붙임 2 안내로봇 분야 연도별 출원동향('13~'17)



(’17년은 ’17.11.30. 기준)

붙임 3 출원인 유형별 분석('15~'17)



구분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외국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개인	계
출원건수(비중)	83(48%)	32(19%)	29(17%)	18(10%)	10(6%)	172(100%)